

4.13 총선 D-20

도내 총선 '더민주 vs 국민의당' '정책전' 보다 '네거티브전' 우려

이번 4·13 총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본선전이 선거구 재획정과 공천 잡음...

부안 김춘진 vs 김제 김중희
완주 임정엽 vs 진무장 안호영 등
선거구 재획정으로 지역주의 심화
정의당·무소속 반사이익 예상도

후보가 4선 도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김제 출신으로 김제소세 학성강당 대표를 역임하고...

과열·혼탁도 야기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야 대 여 혹은 무소속의 선거구도로 공격목표가 주로 야당에 집중된 적이 많았다.

발 기자회견 등을 갖은 바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와 '네거티브' 전략의 반사이익으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왔던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예상하는 정가 의견도 있다.

지역의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인구수 기준 등의 '짜깁기식' 선거구 획정과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의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감에 따라 양당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다. 이중 특히 김제·부안과 완·진·무·장 지역은 유력 후보자들의 출신지가 달라 대표적인 지역으로 보여진다.

전북 전체면적의 34%나 차지하는 공룡선거구 완·진·무·장 지역도 이번 짜깁기식 선거구 획정으로 완주와 진·무·장이 새롭게 합쳐진 선거구이다.

따라서 야당 후보간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펼쳐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는 야당 후보들이 본선 진출까지의 공천 잡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오랜시간 전주지역에서 기반을 닦아온 정운천 예비후보(새누리당, 전주을)와 더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동원 예비후보(무소속, 남순임)는 해당 지역 유력한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 이 행정자치부 장관, 농림식품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숙주 순창군수, 유관 기관장, 민간 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 일품공원에서 개최됐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우리 함께 가꿔가요'

순창서 농촌운동 발대식 열려

농촌 생활환경 개선 운동의 선두 주자인 순창에서 농식품부 행사인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발대식'이 23일 순창읍 일품공원에서 열렸다.

다. 행복몰씨 임양사업은 공원 유원지 등의 청소, 꽃가꾸기 등을 지역주민 및 민간 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운동이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 피해액은 수조원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중인 "더민주 남겼다... 당 정상화 노력"
더불어민주당 김중인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23일 '이 당에 남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제 6 회 전국형소년 마술경연대회
'청소년이 아름답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3시
장소 : 전주 중부비전센터 5F 비전홀